

쿠웨이트의 下流部門 진출전략

지난 10년간 쿠웨이트는 주요 原油 생산국의 위치에서 下流部門으로 서서히 탈바꿈하는 戰略을 수행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上流部門으로 환원된 격이 되었다. 보다 많은 가스를 탐사코자 Khuff와 같은 심층지역을 탐사해 온 결과 대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발견한 대규모 매장량은 가스가 아닌 原油였음이 판명되어 쿠웨이트의 원유확인 매장량을 증가시켰다. 지난 8월초 KOC (Kuwait Oil Company)는 남부 Magwa 인근에서 油田지대를 개발했다. 발견된 油田의 깊이는 기존의 5,000—8,000피트보다 훨씬 더 깊은 12,000—15,000피트이어서 채굴에 많은 비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생산원유의 API가 36°—40°의 良質이기 때문에 채굴상의 악조건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 현재 쿠웨이트 수출原油의 평균 API는 31.2°이다.

이번에 발견한 신규 석유매장량은 230억—330억 배럴로 추정되므로 쿠웨이트의 전체 매장량은 1983년말 현재 670억배럴에서 900억—1,000억 배럴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비율로 계산해 볼 때, 가채연수는 100년으로 늘어났다. 쿠웨이트 石油省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쿠웨이트의 산유량은 하루 106만 5천배럴인데 이는 1982년 83만 3천배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OPEC 할당량(하루 105만배럴)은 계속 상회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中立地帶에서 생산된 하루 14만배럴을 계산에 넣을 경우 쿠웨이트의 산유량은 더욱 늘어난다. 中立地帶에서 생산되는 이 原油의 양은 전쟁중인 이라크를 위한 대신 생산이므로 쿠웨이트측은 이 중립지대 생산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OPE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1983년 쿠웨이트는 原油로 하루 54만 4천 400배럴, 製品으로 38만 6천배럴을 수출했으며, 국내에서 하루 53만 1천배럴을 정제하여 국내시장에 14만 5천배럴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수출했다. 쿠웨이트 石油公社(KPC: Kuwait Petroleum Corporation)는 1983 회계연도에 제품판매로 55억달러를, 原油판매로는 44억달러를 가득하여 하루부문의 진출확화를 보여주고 있다. KPC는 국내에 3개 산하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회계연도에 이들 정유공장의 原油 처리량은 하루 49만 9천배럴이었다. 향후 2년에 걸쳐 정유시설 현대화 작업이 끝나면 이들의 합계 정제능력은 하루 64만 배럴 수준으로 늘어나며, KPC의 맨마크 및 네덜란드 精油工場 정제능력 15만 8천배럴을 포함시키면 총 79만배럴로 신장될 것이다. 또 걸프社로부터 매입한 이탈리아의 Bertonicco 정유공장을 재가동시킬 경우, KPC의 지분 75%의 6만배럴이 있어, 총 정제능력은 하루 85만 8천배럴까지 내다볼 수 있다.

현재 유럽의 石油市場은 침체된 상태로, 현재 精油工場 정제능력 보다 한참 하회하는 수준의 製品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의 경우 국내 정제능력은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경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 여러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製品수출의 진출대안이 유리하고 설득력 있는 전략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앞으로는 쿠웨이트 原油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매입한 정유공장으로 직송·정제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KPC가 유럽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의 정유공장을 이용하려 한다면 정제시설 현대화 계획은 더욱 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점차적으로 보호장벽을 높게 쌓아가고 있는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판로를 확보한 수출지향 정유공장들은 높은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KPC의 EEC 진출이 EEC 공정거래법에 상충될 경우 많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쿠웨이트 石油製品이 유럽시장에 상륙한다면 유럽에 있는 현지 정유업자의 정유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대신 中東의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유럽시장은 교란될 것이다. KPC는 이미 스웨덴에서 Mobil로 부터 다수의 주유소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精油施設 현대화

제 1 단계로 Mina al-Ahmadi 精油工場의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지난 여름에 준공되어 국내 火力발전소의 연료로 低硫黃 연료유를 하루 17만배럴 생산하고 있다. 제 1 단계 정유시설 現代化 작업은 탈황시설에 집중되었으며, 1986년 4월에 끝나는 제 2 단계 현대화 작업도 이와 비슷하며, 이 기간 동안 정제능력은 하루 25만배럴로 늘어날 것이다. KPC가 수행하고 있는 제 2 단계 정제시설 고도화 계획 중에서 현재 건설중인 11개 시설중 4개 시설이 탈황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日本 가솔린」社가 계약자로 활동하고 있다. 종전의 정제능력 하루 20만배럴 규모의 Mina al-Ahmadi 정유공장의 현대화 및 확장비용은 24억 1천500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당초 27만 5천배럴 규모로 확장하려던 계획은 유럽에 있는 쿠웨이트 정유공장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축소 조정되었다.

쿠웨이트 精製戰略의 한가지 특징은 정제능력을 시장환경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적용시킨다는 「流動性」인데, Mina al-Ahmadi 정유공장과 Shuaiba 精油工場도 기존의 정유능력 하루 11만배럴에서 20만배럴까지 시설 現代化를 통해 신장시킬 계획을 수립·수행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제석유 시장에서의 수요변화에 대응, 燃料油 수요가 침체될 경우는 輕質 중간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輕質제품의 수요가 떨어지면 重質제품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시설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石油化學分野 축소

지난 해 KPC는 下流部門 진출의 기본방향을 수정, 石油化學 분야보다는 燃料油의 마케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석유화학분야는 아직도 크게 중요시하고 있으나, Hoechst社의 대부분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크게 국내 石油化學 분야를 우선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개념은 흐려지고 있는듯 하다. 石油化學쪽을 경시하는 듯한 정책노선을 견계된 배경은 다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 i) OPEC의 原油생산 규제로 인한 수반가스 감소로 石油化學 원료 부족
- ii) 전국의 油田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가스채취 시스템 미비
- iii) 정제시설 現代化계획 때문에 우선도에 있어서 밀려남.

이중에서 綜合가스 채취 시스템과 우선도에 있어서 정제시설 現代化에 밀려난 것들은 현재 보완되고 있고, 가스부족 즉 석유화학 원료부족 문제는 발전소와 담수공장들에 대한 연료를 다른 에너지로 代替시킴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가스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英國에의 진출

KPC는 Gulf UK社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고 있고, 또 멀리 日本, 스위스 등에서 사업체를 인수하려 하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 쿠웨이트 石油産業에서 또한 주축을 이루고 있는 KIO (Kuwait Investment Office)는 British Hay's Group에 투자하여 400개의 판로를 보유하고 있는 Pace Petroleum社를 매입하였으며, Hay의 기존 200개의 주유소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英國진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쿠웨이트는 마케팅 戰略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임했다. 産油國들이 자국의 이익과 상충됨을 깨닫고 국제 석유 메이저들을 교묘하게 추방한 것과는 달리 쿠웨이트는 그들을 끌어들이어 자국 석유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유도했다. 몇몇 메이저들은 쿠웨이트를 石油産業의 약탈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기반이 잠식되고 있

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각국 정부가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국영석유회사로서의 KPC가 외국정부의 지사역할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현재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쿠웨이트는 다른 중동산유국들에 앞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제석유 메이저와의 역학관계를 정립, 자국의 이익을 찾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마케팅 戰略

쿠웨이트가 국내외에 정제능력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石油製品 시장에는 고객확보에 치열한 경쟁이 유발될 것이다. 쿠웨이트의 마케팅 전략의 골격은 판매제품을 다양화시키고 최종소비자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구조를 다변화 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1982년말 유럽의 Gulf社 정유공장 및 마케팅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쿠웨이트는 명실공히 原油의 채굴·정제·판

매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체제를 확립하였다. 쿠웨이트는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시장상황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수요증가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下流部門 시장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아울러 정유업자들의 마진율이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석유회사들은 물적유통, 제조활동 및 마케팅방의 재편성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초과 정제능력의 처분압력이 가속화 될 것인데다, 특히 곧 준공될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출용 정유공장의 합작파트너들에 의한 경쟁이 더욱 실감있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회사들의 공급패턴에 있어서 石油製品의 역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요패턴에 적응하도록 收率조정에 신경이 집중될 것이며 장기계약보다는 단기 매매계약을 구매자들이 선호하게 될 것이다.*

□ 産油国動向 □

이란, 계약거래 없는 日社에 원유판매

이란국영석유회사(NIOC)가 155만배럴의 원유를 일본의 C.이또(伊騰忠)사에 매각함으로써 이란은 계약베이스의 석유구매를 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현물판매도 하지 않는다면 조치를 실시 3개월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테헤란에 주재중인 외국 석유회사의 대표들은 이번 이또사에 대한 원유매각이 지난주 OPEC 각료회의의 감산결의에 따라 NIOC가 현물시장 판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는 첫 신호라고 말했다.

이번 NIOC-이또사간의 거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통들은 이또사가 구입 중(重) 질유에는 27.10달러의 공시가 보다 70센트가 낮은 값을, 그리고 경질유에는 공시가인 28달러보다 1.20달러를 적게 지불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

식통들은 또 이 거래원유가 11월 중순 선적될 예정이며 전체물량중 20%는 경질유라고 전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번 이또사에 대한 원유판매가 지난 8월 NIOC가 새로 책정한 『계약 원유를 매입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현물판매도 금지한다』는 판매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되는 이란산 석유수요의 약세가 NIOC로 하여금 강경방침을 완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회사의 관계자들은 이란의 원유 계약판매 협상이 부진한데다 일본측과는 특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NIOC로서는 보다 많은 물량을 현물시장에 내보내야 하는 압력요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